현충시설 통도사, 제1회 호국영령위령재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시설지정 후 첫 호국영령위령대재
용화전 봉안한 미륵불 점안식도
6·25 전쟁 당시 '제 31 육군병원'
현충 시설 지정 기념 산사음악회

현충시설로 지정된 통도사(주지 현문)가 6월 18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장병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정양원)으로 국난을 맞은 국가와 국군장병을 위해 활동했다. 통도사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현충시설로 지정됐으며, 호국불교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현충시설 지정 후 처음으로 이번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먼저 용화전에 봉안된 미륵부처님 점안의식을 봉행했다. 용화전은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으로 활용됐음을 기록한 연기문이 발견된 전각이다. 점안의식을 통해 사부대중은 질병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어진 호국영령 위령재 1부는 통도사 염불원에서 주관해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교수사 혜일 스님 등 염불원 스님들이 전통의식으로 위령재를 봉행했다. 2부는 추모법회로 이어졌다. 추모법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삼혜 스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진복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성현 부산지방보훈처장을 비롯해 유가족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추모법회는 △명종5타 △개회 △삼귀의례 △국민의례 △애국가 및 묵념 △반야심경 △경과보고 △헌향 △헌다 △헌화 △봉행사 △추모사 △청법가 △법어 △추모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후 삼성반월교 옆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현충시설 지정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우담바라 합창단, 양산 윈드오케스트라와 왕기헌 소프라노, 양승엽 테너, 원장형 명인의 대금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힘이 없어 침략당하고 유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방을 튼튼히 해서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부흥을 잘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 한국불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일에 목숨 바쳐 노력했던 호국애민의 전통을 갖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호국영령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넋을 위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바람을 간절하게 모으는 법석"이라고 설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이곳 통도사는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 설치되어 수많은 부상병을 치료하는 시설로 사용되었다. 불상을 모신 불단은 환자들의 병상이 되었고, 귀한 경책은 군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쓰였다. 참혹한 전쟁의 현실 속에서 1300년 유구한 역사의 통도사도 참담한 아픔을 함께하며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전쟁 상황에서 산화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일은 다시 통도사의 소임으로 남아 있다. 이번 호국영령위령재는 통도사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전쟁 중 산화한 무명의 용사를 위로하고, 이 땅에 희생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발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통도사가 6월 18일 특설무대에서 전몰장병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구전을 통해 6·25전쟁 당시 육군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실질적인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2019년 9월 25일 용화전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좌상 복장 조사 과정에서 구하 스님 친필의 '용화전 미륵존불갱 조성연기'가 발견됐다. 조성연기문에는 6·25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분원으로 통도사가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울러 통도사 주변 마을주민과 실제 전쟁에 참석했던 증언자들의 증언을 모았고 2020년 8월 31일 제31육군병원 관련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요약집을 제작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무사령부 등 분원 관련 조사요청 공문과 요약집을 발송했다.

2021년 1월 18일 국방부에서 6·25전쟁 기간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했고, 향후 2025년 발간 예정인 6·25 전쟁사 책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통도사는 이후 자료를 모아 울산보훈지청에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했으며 2021년 5월과 9월 두 번의 현장실사 후 2021년 11월 1일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부산불교聯, 소원등 달기 유료체험

수익금으로 자립준비
청소년에 물품 후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6월 20일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566 부산연등축제' 행사 일환으로 17일간(4월 22일~5월 8일) 소원등 달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소원등 달기 유료체험 수익금을 모아 청소년 지원에 앞장섰으며 1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가전제품은 제습기 12대, 무선청소기 6대, 공기청소기 12대, 선풍기 12대이다. 지원한 가전제품은 부산청소년지원센터 생활관 입소 및 주거지원 청소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여성가족부와 부산시에서 공동출자하여 신라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일정 기간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이후에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

6월 19일, 광명사 지관전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6월 19일 지관전에서 '제15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합동대재는 독립유공자 1만7285명의 위패를 안치하고 독립군 무명용사 195만 명의 독립운동정신과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이하 추모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고문 정각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송기인 신부, 이수일 부산행정자치국장, 이동호 부산의회 부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임성현 부산지방보훈청장, 백종헌 국회의원, 박성종(사)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동 광명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추모대재 1부에서는 독립유공장 합동천도의식으로 시작해 시조창 및 대금연주, 살풀이 춤, 육법공양 등 천도의식이 봉행됐다.

2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의 진혼곡 연주와 △개회선원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대회사 △추모사 △격려사 △시낭송 △축문 △추모합창 △헌화 및 헌향 △합동분양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춘광 스님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1945년 광복을 맞아 일제 지배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섰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대한민국은 21세기 핵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며 "이러한 위대한 업적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추모기념사업회 박성종 이사장은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교과서 왜곡으로 자라는 세대에까지도 침략 야욕의 씨를 뿌리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허황된 만행을 저지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님들의 고귀한 애국정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후손들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완성과 민족의 슬기와 화합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기념사업회는 2005년 8월 10일 창립해 2008년 5월 20일 독립유공자 정신계승, 선양, 연구 및 추모대제를 주관하는 독립유공자 단체로, 선열의 유훈을 계승하여 애국애족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바른 시민사회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시민 위한 '산사 힐링음악회'


가수 알리


김동규 바리톤


김영임 국악명창

7월 3일, 성보박물관 앞마당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7월 3일 오후 7시 신축 이전한 성보박물관 앞마당에서 '범어사 산사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

범어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일상회복의 행복을 선사하고 가족들과 염천의 무더위를 산사에서 식히는 휴식을 선물한다. 음악회에는 가수 알리, 김영임 국악명창, 김동규 바리톤, JGL아카펠라팀, 세종국악단이 1시간 30분 동안 공연할 예정이며 행사 이후 KNN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환응 스님은 "신축 이전 이후 코로나로 인해 불자와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없었다. 이번 음악회는 시민들에게 성보를 더욱 친숙하게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성보박물관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성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국내 성보박물관 내 가장 많은 전적을 소장한 박물관이다. 그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삼국유사〉 권4, 5를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상설전시관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범어사 사천왕도 등 문화재와 다채로운 불화를 전시하고 있다. 2층 기획전시관에는 범어사의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현재 박물관 내 중정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에서 발견된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추본 부산, 제21차 평화통일 특강

6월 16일, 홍법사 교육관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정관)가 6월 16일 부산 홍법사 교육관에서 '제21차 정기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최근 북한의 사찰과 평양을 소개하는 '달라진 평양의 모습과 북녘 불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뉴스로 로창현 기자가 강연을 담당했다. 로창현 기자는 2018년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취재했다. 로창현 기자는 북한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북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로창현 기자는 저서 〈평양여자 서울남자 길을 묻다(정음서원, 2020)〉를 출판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